<https://youtu.be/8MugD6Cwhl8?si=ve1BVub9DMyy0MM_>

week3

due 23-09-20

영상이 사용한 ‘1단 로켓을 떼어낸다’ 라는 표현이 인상 깊었다. 놀라운 추진력으로 발전을 이끌어낸 든든한 방식일지라도 시대의 흐름에 영원히 함께할 수는 없다. 과거의 영광에 얽매여서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2단 로켓 점화를 막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기존의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다. 2차 산업 기반의 발전을 이룩해온 우리나라의 역사는 그 시기에 우리가 가지던 특성과 이점을 가장 잘 살린 최선의 방식이었고 실제로 큰 부흥을 가져다주었다. 하지만 그 시기의 우리나라와 오늘날의 우리나라는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졌다. 더 이상 그 때의 성장을 가능케 했던 요소들은 유의미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국가가 차지한 지 오래다. 놓지 못한 과거는 오히려 추진을 방해하는 무게가 될 것이다.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는 2단 로켓을 준비하고 자원과 집중을 옮겨 싣는 것이다. 결국 오고야 말 중간 소득 함정에 빠져 완만해져 가는 그래프와 함께 가라앉기 전에 새로운 상승 곡선으로 갈아타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상승해왔던 지난날 만큼이나 뼈아픈 추락을 경험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오늘날의 사회는 거대한 폭풍이라는 표현이 무엇보다 알맞다고 생각한다. 이미 귀에 딱지가 앉도록 들어온 4차, 5차, 6차까지 언급된 산업혁명, 급격한 정보화 시대로의 진입, 그리고 AI기술의 비약적인 성장… 변화는 너무나 빠르게 우리를 덮쳐오고 있다. 이제 세대의 격차는 세기의 격차와도 같아졌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실 속에서 사회인이 되기 위해 준비하는 우리는 무엇을 목표하는 것이 옳을까.

영상은 예시를 들며 개념 설계 역량의 중요성을 이야기한다. 소위 말하기를 ‘밑그림을 그리는’ 능력이다. 이 내용을 들으며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며 자주 빠지던 상념이 떠올렸다. 업계가 성장하면서 수많은 비 전공자들이 산업에 뛰어들고 각종 부트 캠프, 국비지원 캠프 등이 만연해진 오늘날의 시장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었다. 하지만 같은 고민을 가진 친구들과 이야기하며, 교수님들의 말씀을 들으며 점차 깨닫게 되는 것이 있었다. 탄탄한 cs지식과 전공에서 배우는 기본적인 공부가 단단히 받쳐준다면, 단순 현장 투입을 위해 기술 만을 익힌 사람들과 시간이 갈수록 격차를 벌릴 수 있으리라는 것이다. 결국 실무는 기술에, 기술은 지식에 기반한 것이다. 뿌리를 외면하고 가장 겉의 기술 만을 배워서는 결국 ‘구현’ 할 수는 있으나 제대로 된 ‘설계’ 를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왜 sort() 함수가 있는데도 우리는 sorting 알고리즘을 배울까? 원리를 몰라도 사용할 수는 있다. 하지만 그저 사용할 수 있을 뿐이다. 어떤 상황에 어떤 방식을 채택할지, 어떻게 코드를 짤 지, 큰 그림을 그리며 매 선택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지점은 단단한 기초 지식이 가져다 준다. 돌아간다고 다 되는 게 아니다. 컴퓨터 언어 또한 언어기에, 단순히 사용할 줄 아는 것으로 제대로 된 전문성을 가졌다 말할 수는 없다. 주어진 도구를 누가 어떻게 활용하여 최고의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지가 핵심이다. 이는 필드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것이야말로 밑그림과 설계를 위한 핵심 능력이 아닐까?

어디에서든 큰 그림을 읽을 수 있는 시야를 가지고 싶다. 이 바람은 넓고 탄탄하게 깔린 나만의 배경을 필요로 한다. 그 재료를 준비하기 가장 좋은 때가 지금이다. 공부하자.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